

◆김경태 「제2회 한국, 일본, 중국에서의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몽고내습과 13세기 몽고제국의 글로벌화』 원탁회의 보고」

제57회 SGRA포럼은「제2회 한국, 일본, 중국에서의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 몽고내습과 13세기 몽고제국의 글로벌화」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다. 지난해 가을에 개최되었던 제1회 회의가 프롤로그의 성격으로 앞으로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행사였다면, 2회 대회는 학계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젊은 연구자들이 모여 본격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자리였다.

2017년 8월 7일부터 3일간, 기타규슈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이번 회의에는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 일본의 관측사상 두번째로 느린 태풍인 태풍10호가 개최 당일 규슈의 북부를 지난다는 예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행사에는 다행히도 개최지인 기타규슈의 항공과 열차 운행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다만 항공회사가 사전에 착륙시간을 조정했기 때문인지, 한국에서의 참가자 중 일부는 (필자 본인을 포함하여) 개최시간에 조금 늦게 도착하였다.

첫째날은 개회식과 기조강연이 있었다. 이마니시 준코 SGRA대표의 개회인사에 이어, 미타니 히로시 교수(야토미학원여자대학)의 취지설명이 있었다. 지금까지 동아시아 역사를 배경으로 전개되었던 역사관련 논의는 주로 20세기 전반 일본의 침략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집중되었다는 것, 이러한 논의들이 어떤 면에서는 성공하였지만, 어떤 면에서는 실패했다는 것, 분명한 점은 국가가 개입하였던 경우 실패했다는 것, 그러나 개인이 구성한 논의의 장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경우에는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총 다섯 차례, 연속으로 개최될 예정인 이번 회의는 전근대와 근대 이후를 모두 아우른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1~3회는 전근대에 배치하였다고 하였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발표를 잘 듣고 이에 회답하는 작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거자오광 교수(북단대학)는 기조강연「포스트 몽골시대? -14~15세기 동아시아사를 재검토한다」에서, 몽골제국이 쇠퇴한 후 새로운 왕조들이 성립하고, 서로 (조공 시스템에만 한정하지 않는) 다양한 관계를 맺기 시작한 14세기 말 ~ 15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를 동아시아의 이후의 관계를 규정하는 계기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관련한 시대를 연구하는 연구자로서도 중요한 지적이었다고 생각한다.

8월 8일은 본격적인 논문발표회였다. 4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11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첫 번째 세션은 윗카이치 야스히로(쇼와여자대학), 초크트(내몽고대학), 하시모토 유(훗카이도대학)의 발표로, 「몽골임팩트」의 역사적 의미, 그리고 각국의 입장, 나아가 세계사의 시점에서 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제안이었다. 두 번째 세션은 에르둔바토르(내몽고대학), 무카이 마사키(도시샤대학), 쉰웨이거(남개대학)의 발표였다. 몽골 침략에 의한 문화적, 기술적 영향을 다양한 사료를 통해 접근한 발표들이었다. 세 번째 세션은 김보광(가천대학), 이명미(서울대학), 체렌도르지(몽골사회과학원)의 발표로, 몽골의 주요침략대상이 되어 장기간 저항했던 고려를 분석대상으로 삼아 몽골의 지배 실상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마지막 세션은 조원(한양대학), 장지아(북단대학)의 발표로, 음식과 모자라는 물질적, 문화적 요소에서 보이는 장기적인, 그리고 계열적인 몽골영향을 조사하였다. 각 세션의 발표자는 다른 세션의 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가졌다.

8월 9일 오전은 전날에 있었던 개별적인 연구보고를 기반으로 한 전체 토론 시간이었다. 일반적인 학술대회와는 조금 다른 구성이었는데, 하루 정도 묵힌 질문이나 코멘트는 그만큼 정제되고 발전된 형태였고, 그러한 점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종합토론에 앞서 조광 위원장(한국국사편찬위원회)의 논점정리가 있었다. 「몽골내습」과 「글로벌화」를 키워드로 하여 집중적인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는 것, 글로벌화에 성공한 「제국」인 몽골, 그 속에서 한국, 일본, 중국이 각각 어떤 역사를 전개하였는지를 검토대상으로 삼은 연구를 통해, 글로벌화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글로벌리제이션은

단순히 글로벌화만이 아니라, 글로벌리제이션과의 상호관계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네 세션의 발표 모두, 정치와 통치양식, 문화교류 등을 폭넓게 분석하였는데, 각국의 국사를 다루면서 일국사적 시각에 머무르지 않고 동아시아 전체를 바라본다면 얼마나 폭넓은 연구가 가능해지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다고 평가하였다.

종합토론의 사회를 맡은 류지에 교수(와세다대학)은 5개의 토론 주제를 제안했다. 먼저 몽골제국의 영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두 번째, 책봉체제와 조공. 세 번째, 몽골제국은 몽골사인가 중국사인가, 그리고 어떻게 대화하면 좋을 것인가. 네 번째,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어지는 한국의 역사에서 중국의 위치는 어떠한가. 마지막으로, 사료비판의 문제였다. 이어서 자유토론이 진행되었다. 위의 논점 중에서 특히 책봉체제, 몽골의 역사, 사료비판 문제에 대해 참가자 전원이 참여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미타니 히로시 교수의 총괄정리가 있었다. 매우 충실한 3일간의 회의였다는 것, 실행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 드린다는 것, 다만 조금 더 깊은 수준의 「글로벌화」 분석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감상을 남겼다. 그리고 앞으로도 대화가 이어지길 바란다는 총평이었다.

오후 일정은 견학회였다. 몽골이 침략해 온 규슈 북부의 주요 유적을 답사했다. '원구기념관'과 '하코자키 궁'은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사용하는가라는 문제의식을 떠올릴 수 있는 사료관으로서, 또한 유적으로서 인상 깊었다. 빛 속에서 방문한 이키노마쓰바라 원구방루유적에서는 약 800년 전, 바다로부터 상륙을 시도하던 몽골연합군과 이를 지켜보던 일본의 가마쿠라무사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라는 생각에 잠겼다.

회의 기간 동안, 각 국의 연구자는 자신의 최신 연구성과와 연구과정의 고민을 제시하고, 토론과 조언을 교환했다. 역사상 존재했던 나라, 내지 왕조의 세력범위가 반드시 현재의 국경이나 국가개념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 같은 면에서 본다면, 몽골 연구자의 참가는 이번 회의의 중요한 장면이었다. 한편 국제회의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언어의 문제이다. 교차통역을 할 경우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질문이나 반론이 있어도 제기하지 않고 넘어가버리는 경우가 많다. 3일에 걸친 이번 회의에서는 동시통역이 제공되어 각 국의 연구자들이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었다. 아츠미 재단과 동시통역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

이번 회의에서 느낀 감상은 모두 다를 것이다. 그러나 많은 성과와 과제를 남겼다는 점에는 동의할 것이다. 동아시아라는 공간, 시대의 변화와 조공관계의 변화, 고정적인 각국사의 시각을 어떻게 하면 뛰어넘을 것인가 등, 기본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얻은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국사들의 대화」는 5회까지 예정되어 있다. 지금까지 얻은 성과를 잃지 않고 유지하여 다음 회의로 이어가야 한다. 성과를 딛고 다음 단계로 올라서야 한다. 내년 여름에 개최될 제3회 회의는 근세 동아시아를 뒤흔든 전란과 평화의 세기로의 이행을 다룰 예정이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새로운 역사학의 시대로의 발전을 기대한다.

회의 사진은 아래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aisf.or.jp/sgra/active/photo-gallery/2017/9468/>

보고서는 2018년 봄에 SGRA레포트로 발행될 예정이나, 관련자료는 아래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aisf.or.jp/sgra/research/kokushi/2017/8049/>

< 김경태 ☆ Kim Kyongtae >

대한민국 포항 출생. 한국사학 전공.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과정 중인 2010년~2011년, 동경대학 대학원 일본문화연구전공(일본사학) 외국인연구생으로 유학. 2014년 고려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취득. 한국학

중앙연구원 연구원을 거쳐 현재는 고려대학교 인문역량강화사업단 연구교수. 전쟁의 파괴적인 본성과 전쟁이 가져온 황무지에서도 끊임없이 성장하는 평화 사이에 존재하는 역사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주요저작 : 임진전쟁기 강화교섭 연구 (박사논문)